대한소화기학회
The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대한소화기학회 윤리레터

- 연구부정행위-데이터 표절 -

현대사회에 들어서 임상연구는 연구자에게 연구 성과에 대한 압박이 증가되고, 연구자 급증으로 인해 연구비 및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자 간의 경쟁도 급격히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자신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윤리 규범이나 표준을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일은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 연구윤리규범에 대한 체계적 논의는 2005년 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07년 2월에는 과학기술부 훈령으로 제 236호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까지 공포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연구부정이 발생하는지는 건 수 자체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전담하는 기관도 없다. 다만, 교육부 자료[1]를 통해 2008년~2012년 사이 국내 35개 대학에서 169건의 위반사례가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대학당 매냔 1건인 셈이다. 그러나, 실제 발생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반사례를 위반행위의 유형으로 분석해보면 표절(60%), 부당저자 표시(20%), 중복게재 (11%), 대필(6%), 위변조(4%) 순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연구부정행위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표절(plagiarism)**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표절은 타인의 고유한 생각이나 연구 착상, 분석 체계나 방법, 논문의 전개방식과 결론을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는 **아이디어 표절**과 다른 연구자가 작성한 논문을 복제(verbatim plagiarism), 짜깁기 표절(mosaic plagiarism), 말 바꾸어 쓰기 표절(Inappropriate paraphrasing/summarizing), 잘못된 전문인용, 포괄적 인용, 데이

터 표절 등과 같은 **텍스트 표절**로 나눌 수 있다. 다른 연구자 논문의 그림, 표, 그래프 등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는 텍스트 표절 중에서 **데이터 표절**에 해당한다.

다음은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에서 **데이터 표절**에 대해 언급된 내용이다.

데이터 표절

- 다른 사람의 데이터(그림, 표, 그래프 등)를 내 것인 양 가져와 쓰는 행위이다. 이는 사실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 스스로 데이터를 생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위조의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지금의 논문 주제와 관계없이 과거에 발표된 자신의 데이터를 재사용한 경우에는 표절이라 간주하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이 역시 데이터 위조의 행위이다.

- 한편, 필요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리뷰 논문에서 논리를 전개할 때, 다른 논문의 사진이나 그래프 등의 데이터를 직접 보여주고 일일이 지적하면서 글을 기술하면 보다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원저자에게 해당 데이터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에 활용할 수 있다. 관련 논문이 실린 학술지의 홈페이지에 가면 'Request for permission to reproduce published material'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여 출판사 또는 학술지 편집자에게 보내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술지에서는 저자의 허가도 받으라고 적어놓고 있는데, 이는 원 저자의 지적 노력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의미 있는 절차이다

출처: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연구부정행위의 판정기준 황은성, 김영목

1 장용준,「지난 5년간 대학연구윤리위반사례 중 파렴치 행위 86%」,

『나눔채널 News』, 2013.10.31, <http://www.e-nanoom.com/ news/articleView.html?idxno=620>(2013.11.5).